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 신년주일

25권 1호 2023.01.01

1.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올해 갈보리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신앙 표어는 '다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롬 12:1-2)입니다. 신앙의 중심인 예배를 최우선시 하는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3. 수요일 예배는 12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3주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주보 선교란에 있는 선교사 기도 제목과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4. 금요일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1월은 27일, 2월부터 격주, 오후 7시).
5. 2023년도 교회 생활 안내집을 준비 중입니다. 전화번호를 비롯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지난 주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자: 김다슬 자매
7.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사역일지

- 1월 1일(주일) 신년 주일, 성찬식
- 1월 22일(주일) 제직 주일
- 1월 27일(금) 금요일 기도회
- 1월 29일(주일) 권사 기도회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00 pm
청년예배	2:45 pm
유아부	1:00 pm
아동부	1:00 pm
청소년부	1:00 pm
수요일예배	7:30 pm

###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최희숙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신, 허영순, 박혜정

###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전도사 김양이

다시  
 참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로마서 12:1-2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St Luke's Church  
 130 Remuera Road,  
 Remuera, Auckland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주 일 예 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 양	- - - - -	주일 찬양단
예 배 로 부 름	- - - - - 시편 127:1-2, 7	- 인도자
❖ 찬 송	- - - - - 550장	- 다함께
❖ 참 회 의 기 도	- - - - -	- 다함께
❖ 신 앙 고 백	- - - - - 사도신경	- 다함께
찬 송	- - - - - 552장	- 다함께
대 표 기 도	- - - - -	- 장경희 집사
아 동 부 설 교	- - - - - <b>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b>	- 김양이 전도사
성 경 봉 독	- - - - - <b>로마서 12:1-2</b>	- 인도자
찬 양 대 찬 양	- - - - - 순종하며 경배하리	- 나무심자가 찬양대
설 교	- - - - - <b>다시 참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b>	- 이태한 목사
찬 송	- - - - - 435장	- 다함께
성 찬 식	- - - - -	- 집례자
헌 금 기 도	- - - - -	- 인도자
교 회 소 식	- - - - -	- 인도자
❖ 공 동 성 경 읽 기	- - - - -	- 다함께
❖ 응 답 송	- - - - - 411장 (1,3절)	- 다함께
❖ 축 도	- - - - -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순서: 1월 8일 - 현석호 장로 / 1월 15일 - 김병진 목사

# 금 주 의 기 도 제 목

## 선교 기도 -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동역자님들께

한 해 동안 한결같이 보내주신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예배:**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집에서 야채와 열매들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성찬식과 함께 감사예배를 올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올려드린 풍성한 열매들을 성도들과 나누는 은혜로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곳,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인 지 9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 이들에게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 흐뭇합니다.

**성탄 축하:** 이곳은 11월 말이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이 기간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성탄절을 뜻깊게 맞는 교회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크리스마스는 즐기는 공휴일이 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지만 그럴수록 최선을 다해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알리고 선물도 준비하여 12월 생일자들과 함께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1. 교회가 부흥하고 현지인들의 리더십이 성장하여 주인 의식을 갖도록
2.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 공동 기도

1.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거룩하고 진리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2.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참 예배자가 되도록.
3. 질병과 삶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도록.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